

# 전남대 '생리공결제' 도입...여대생 인권 챙긴다

### 생리통으로 결석해도 출석 인정...거점국립대 4번째 월 1일·학기당 4일 이내 "오·남용 없게 시스템 갖춰야"

전남대학교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4번째로 '생리공결제'를 도입한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도입하는 생리공결제는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 때, 별도의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전남대는 오는 9일 열리는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교학규정에 생리공결제를 추가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남대에서는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구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건이 교수평의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학무회의를 거쳐 3월 학기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생리공결제는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생리공결제 마련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제도다. 지난 2004년 인권위에 "생리로 인한 결석을 병결·병조퇴로 처리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다"는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한 인권위의 답이였

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생리공결제가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는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대학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중 생리공결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3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도 일부 사립대학은 수년 전부터 제도를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학사규정상 병결 사유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를 규정했다.

조선대에서는 결석사유서에 '생리공결' 항목을 선택하고 이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한 횟수는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다.

호남대와 광주여대, 송원대 또한 지난 2018년부

터 생리공결제를 시행했다. 이들 역시 사후에 결석 사유서를 담당 교수나 학과장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월 1회만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광주교대, 광주대, 동강대 등 교학규정이나 학칙시행세칙에 생리공결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대학도 적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들은 제도를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수업은 출석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생리통이 심하지도 않은데도 휴가 쓰듯이 생리공결을 악용하면 멀쩡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 탓에 전남대 또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남대 학생처는 지난달 5일 교수평의회 회의 안건으로 생리공결제를 제안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미 전남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기존안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식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제도를 오용하거나 과용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면서 "또 생리는 한 달에 두 번 올 수도 있는데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고 세심한 안전장치와 배려를 갖출 것을 학생처에 요구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장인영(여·25·영어교육과 3년)씨는 "경우에 따라 어지럼증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할 만큼 생리통이 심한 학생도 있는데, 그동안은 그저 참으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며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장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오건일(23·국어국문학과 4년)씨는 "제도 자체는 환영하나, 악용 가능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남녀 평등 문제로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며 "서강대의 경우 200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다 악용 사례 때문에 결국 폐지했는데, 이를 본보기 삼아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남대는 교수에게 직접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대 포털사이트에 '생리공결' 메뉴를 추가하고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학생처 관계자는 전했다.

한 의장은 "생리공결제는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올해 신학기부터 공결 제도를 시행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교육공무원 2566명

광주시교육청이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맞춰 교육공무원 256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일 단행했다. <인사 명단 20면>

직무 분야별로 유치원 교원 78명, 초등 교원 1428명, 중등 교원 936명, 교육전문직원 124명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전남대에 장학관을 파견하는 한편, 신설될 진로진학과장 보직 인사도 실시됐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광주남초 정성숙 교장, 학생교육원장에 용두중 호호성 교장,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에 광주교대 광주부설초 노재춘 교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중등특수교육과장에 김선성 정책기획과장, 진로진학과장에 박철영 중등교육과 장학관,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에 광주체육과 엄길훈 교감을 각각 전보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이하 교대부초) 근무 경력자 가운데 장학관 1명, 장학사 3명이 합격했다"며 "교육감과 정책국장이 모두 교대부초 인연이 있어 정실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연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추운 겨울 공원의 풍경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일 어른신들이 추위를 피해 광주시 동구 푸른길 공원에 설치된 온기 텐트에 모여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의사 꿈 접고 교육자 택한 학생 화제

### 광주 출신 백윤성씨 연세대 의대 두차례 입학 후 자퇴 조선대 수학교육과 입학 "학벌사회 타파 상징 되고파"

누구나 선택하는 의사의 길을 포기했다는 한 대학생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전도유망한 연세대 의과대학을 자퇴하고 조선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주인공은 광주 출신 백윤성(27·사진)씨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일 만난 백씨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포기한 이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백씨는 취재진의 요청에 연세대 '연세포털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두차례에 걸쳐 입학 및 자퇴했던 사실을 증명했다.

백씨는 광주 삼각초·고려중·고려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5년 연세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기대를 받으며 의대에 들어갔지만, 대학생활이 생각처럼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 백씨의 이야기다.

백씨는 "대학에 입학해보니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나보다 뛰어난 동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정보를 외우고 익혀야 하는 의대 수업도 따라가기 벅차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백씨는 2017년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됐으나, 다시 수능을 준비해 2018년 연세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다시 수능을 볼 때까지 해도 의대가 아닌 물리학 쪽으로 진학하려 했지만, 물리학과 학생들도 재수를 해 의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의대 본과까지만 다녀보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백씨는 지난해 1학기까지 5년간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에서 학업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수능을 치러 2023학년도 조선대 수학교육과 정시 모집에 합격했다.

백씨는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더 이상 지원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정말 학업을 집중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며 "본가가 있는 광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학을 다니기 위해 조선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화제가 되는 것이 얼떨떨하다는 백씨는 "대학 이름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벌을 중시한다"면서 "꿈을 이뤄 학벌 사회를 타파하는 나의 상징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시교육청, 특정 단체 소속 예술작 편중 구매

### 전임 시절 구입 44점 중 21점 전교조·시민단체 작가 작품

광주시교육청과 직속 기관 등이 전임 교육감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특정 교육단체 소속 예술인 작품을 편중 구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본청과 10개 직속기관이 사들인 44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1점이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4명의 작가 작품으로 파악됐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사용된 예산은 A작가 7점 4880만원, B작가 4점 2940만원, C작가 6점 2333만원, D작가 4점 1580만원 등 총예산의 64.7%를 차지했다. 작품을 사들인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장휘국 전 교육감이 재직했던 때다.

시교육청은 본청 총무과와 재정복지과를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7개 기관에 '기관경

고' 처분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다수 기관이 예술작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술작품 취득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면서 "내·외부 전문가로 예술작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품 취득과 구매에 관한 심의 기능을 포함한 관리 규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심창욱 광주시의원은 "전임 기관장 시절 발생한 문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관경고는 단순한 주의에 불과하므로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기 기자 penfoot@

결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